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왼쪽)과 신태용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14일 오전 중로구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레바논전 출전 명단과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각각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림픽 출전하라” 손 놓아준 슈틸리케

〈손흥민〉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평가전 23명 명단 발표

‘황태자’ 이정협 복귀...석현준·황의조와 ‘스리톱’

지난해 안면 복합골절 이후 대표팀에서 제외된 ‘황태자’ 이정협(울산)이 슈틸리케 호에 복귀했다. 2016 리우올림픽 와일드카드 출전이 추진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은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14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및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슈틸리케호는 21일 안산에서 소집돼 훈련에 나서고, 24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레바논전을 치른 뒤 태국으로 원정, 27일 평가전을 치른다. 이날 발표된 선수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흥민의 제외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에 손흥민을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대신 올림픽 본선 때 올림픽대표팀에서 뛰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토트넘 구단에 보냈다”고 소개했다. A매치 기간 휴식을 주는 대신 차출 의무가 없는 올림픽 본선에 손흥민을 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트넘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으로 잠시 빠졌던 이정협은 대표팀

에 복귀해 석현준(FC포르투), 황의조(성남)와 원톱 경쟁을 벌이게 된다. 지난 1월 한국의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권창훈(수원)은 이번에도 올림픽 대표팀에 포함돼 제외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권창훈은 성인 대표팀 핵심선수이지만 올림픽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했다”며 “올림픽 본선이 끝날 때까지 배려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FC서울에서 카타르 알 라이안으로 이적한 미드필더 고명진은 슈틸리케 호에 처음으로 승선했다. 또한 김바 오사카의 수비수 오재석이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고명진은 카타르로 이적한 뒤 리그 1위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서 발탁했다. 오재석은 김바 오사카라는 좋은 팀에서 주전 임지를 다지고 있어 발탁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밖에 골키퍼로는 J리그 3인방인 김승



규(빛세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탈레)이 발탁됐다. 또 권순태(전북)와 김정수(전북), 김주영(상하이 상강), 주세훈(서울), 김신욱(전북)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광주 FC 이찬동·박동진 ‘신태용호’ 재승선

올림픽대표팀 알제리 평가전 명단 발표

광주 FC의 미드필더 이찬동과 수비수 박동진이 ‘신태용호’에 재승선했다. 신태용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날 알제리와 두 차례 평가전을 앞두고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박인혁(프랑크푸르트)과 최경록(상파울리)이 올림픽 대표팀의 알제리 평가전 선봉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출전이 유력시 됐으나, 막판 소속팀에서 차출을 거부해 아쉬움을 샀다. 공격수에는 박인혁과 함께 진성욱(인천)과 김현(제주)이 이번에도 승선했고, 최종예선에서 두각을 드러낸 황희찬(잘츠부르크)은 제외됐다. 신 감독은 “황희찬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배려 차원도 있다”며 “리우 올림픽에 갈 때 일찍 데려가기 위해 이번에 뽑지 않았고, 잘츠부르크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경록은 류승우(레버쿠젠), 권창훈(수원), 문창진(포항), 박용우(서울) 등과 함께 미드필드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정원진(포항)이 올림픽 대표팀에 처음 승선했고, 덴마크에서 뛰는 박정빈(호브르)도 부름을 받았다. 수비수에는 황기욱(연세대)과 함께 대표팀 출전 경험이 없는 김민재(연세대)가 발탁된 가운데 주장을 맡았던 연제민(수원)은 신 감독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골키퍼는 이창근(부산)이 빠지고 구성윤(콘사도레 사포로)과 김동준(성남)이 2인 체제로 꾸러졌다. 광주에서는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찬동과 함께 지난 12일 포항과의 경기를 통해 프로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박동진이 나란히 신태용호에 합류했다. 전남 수비수 이슬찬도 알제리전을 준비한다. 신태용호는 오는 21일 소집돼 25일 오후 8시 이전종합운동장, 28일 오후 7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알제리와 두 차례 맞붙는다. 스위스 출신의 피에르 슈르만 감독이 이끄는 알제리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예선 2위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2분... 이승우 프로 데뷔전

### 바르샤 B 후반 33분 교체 출전

스페인 프로축구 명가 FC바르셀로나 후베닐A(U-19)에서 뛰는 이승우(18)가 마침내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승우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예이다와 스페인 세군다B(3부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B팀의 엔트리에 포함돼 후반 33분 교체 출전했다. 이승우는 팀이 0-1로 뒤진 상황에서 교체 투입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바르셀로나 B팀은 후반 막판 1골을 더 허용해 0-2로 졌다. 이승우는 후베닐A 소속이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B팀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엔트리에 명단을 올린 첫날 12분간 그라운드를 밟으며 활발한 움직임으로 코칭스태프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바르셀로나 선배’인 백승호(19)가 이미 바르샤B 데뷔전을 치른 바 있다. 이승우는 백승호와 함께 당분간 바르셀로나B와 후베닐A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 B팀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선두를 달리는 바르셀로나의 리저브(2군)팀이다. 좋은 실력을 보여주면 바르셀로나 1군팀 승격할 기회를 얻는다. 한편, 백승호는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2015-2016 스페인 U-18 리그 3조 후베닐A-카사블랑카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뽑아내 팀의 역전승을 견인했다. 백승호는 0-1로 끌려가

스페인 프로축구 명가 FC바르셀로나 후베닐A(U-19)에서 뛰는 이승우가 마침내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승우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예이다와 스페인 세군다B(3부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B팀의 엔트리에 포함돼 후반 33분 교체 출전했다. <이승우 트위터 캡처>

던 후반 시작과 함께 왼쪽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골망을 가르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후베닐A는 백승호의 동점골에 힘입어 이후 1골을 허용했지만 2골을 더 터뜨려 3-2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 IBK기업은행 2연패나 현대건설 영광 재현이나

### 17일부터 프로배구 여자부 V리그 챔피언결정전

#### 정규리그 3승3패 ‘팽팽’

IBK기업은행과 영광 재현에 나선 현대건설이 NH농협 2015-2016 프로배구 여자부 V리그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기업은행은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 직행 티켓을 얻었고 현대건설은 흥국생명과 플레이오프를 두 경기 만에 끝내고 챔피언에 합류했다. 두 팀은 17일부터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1·2차전(17·19일)은 기업은행의 홈 화성에서 3·4차전(21·23일)은 현대건설 안방 수원에서 경기를 한다. 4차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25일 화성에서 최종전이 열린다. 메인 테마는 수성과 설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현대건설을 꺾고 챔피언에 올라 한국도로공사마저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전반기(1~3라운

드)에 선두 질주를 이어가다, 후반기(4~6라운드)에 기업은행에 역전을 허용해 정규리그 우승 기회를 놓쳤다. 현대건설은 전반기 12승 3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후반기 5승 10패로 무너지며 기업은행에 밀렸다. 지난 시즌 챔피언이자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기업은행은 수성을,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무릎 꿇고 정규리그에서도 2위에 그친 현대건설은 설욕을 노린다. 양철호 현대건설 감독이 “개막하기 전부터 기업은행과 챔피언전에서 만나 우승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설욕하고 싶은 의욕이 크다. 양 감독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현대건설은 2010-2011시즌 이후 5년 만에 우승컵을 든다. 팬들에게는 한국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를 한눈에 볼 기회다. 현대건설 황연주는 “기업은행은 경험이 필요한 자리에는 베테랑이, 패기가 필요한 자리에는 젊은 선수가 있는 조화로운 팀”이라고 기업은행을 예우했다.

기업은행은 베테랑 센터 김사나와 리베로 남지연이 중심을 잡고, 젊은 공격수 김희진과 박정아가 화력을 뽐낸다. 김희진과 박정아는 센터와 라이트를 오가며 상대를 괴롭힌다. 정규리그 막판 손가락 골절상을 당한 외국인 공격수 리즈 맥마흔의 몸 상태가 관건이다. 맥마흔이 코트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정규리그 때 기량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현대건설 양효진은 “기업은행이 정말 강한 팀이지만, 우리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베테랑 라이트 황연주와 센터 양효진이 외국인 에밀리 하동과 삼각편대를 이룬다. 고민이 컷던 수비형 레프트 자리도 베테랑 한유미와 신에 고유민이 번갈아 나서며 격정을 줄였다. 정규시즌 양 팀 맞대결 성적은 3승 3패다. 세트 득실까지 같다. 현대건설이 독주하던 전반기에는 3승을 모두 현대건설이 챙겼다. 반면 후반기 3경기에서는 기업은행이 모두 승리했다. 양 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챔피언결정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